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29 주차 (롬 10:16-11:8)

(2016년 3월 18일 - 2018년 3월 24일)

(제5권 29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3 월 1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주일)

오늘의 본문 (롬 10:16~18)

- ¹⁶ Ἄλλ' οὐ πάντες ὑπήκουσαν τῷ εὐαγγελίῳ. (그러나 저희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Ἡσαΐας γὰρ λέγει·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누가 우리로부터 들은 것을 믿었는가?)
- ¹⁷ ἄρα ἡ πίστις ἐξ ἀκοῆς,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고)
ἡ δὲ ἀκοὴ διὰ ῥήματος Χριστοῦ.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 ¹⁸ ἀλλὰ λέγω, (그러나 내가 말한다)
μη οὐκ ἤκουσαν,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정말 그러냐?])
μενοῦνγε· (사실은 그렇지 않다)
εἰς πᾶσαν τὴν γῆν ἐξῆλθεν ὁ φθόγγος αὐτῶν (그들의 소리가 온 땅으로 퍼졌다)
καὶ εἰς τὰ πέρατα τῆς οἰκουμένης τὰ ῥήματα αὐτῶν. (그들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하나님은 쉬지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시나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후 율법에 얽매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 하지만 한번 율법에 매인 그들은 거기에다 조상들의 유전까지 더해 일종의 율법주의로 치달으며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저지른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나” (눅 13:22~25참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단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이다. 뜻하지 않게 예수님께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항변을 한다. 예수님은 그들의 항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²⁶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²⁷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²⁸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²⁹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 하리니 ³⁰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눅 13:26-30).

예수님은 분명 ‘너희’라는 이인칭을 사용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들은 스스로 억울하다고 여기고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분명 주 앞에서 마시고 주의 가르침 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율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 그들은 여전히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려 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는 도중 한 바리새인이 끼어들어 헤롯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로 자신에게 곧 닥칠 수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이어서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눅13:34).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이자 메시아로 그들을 찾아 오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앓은뱅이가 일어서고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는 오히려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걸 트집잡고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를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비유로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단지 인간의 교훈 정도로만 폄하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었으며 그저 랍비의 하나에 불과했고 초능력을 가진 기이한 사람 정도로만 여겨졌을 뿐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히 4:2).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회개를 하고 세례도 받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한다. 이러한 열심이 마음의 변화를 통한 본질적 변화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율법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어 봉사를 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쌓고 있다면 그 행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이 넘쳐서 복음의 빛진 자가 되어 그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들음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낼 뿐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복음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0:19~21)

- ¹⁹ ἄλλὰ λέγω, (그러나 내가 말한다)
μη Ἰσραὴλ οὐκ ἔγνω;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πρῶτος Μωϋσῆς λέγει· (모세가 먼저 말했다)
ἐγὼ παραζηλώσω ὑμᾶς ἐπὶ οὐκ ἔθνει,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질투나게 할 것이다)
ἐπὶ ἔθνει ἀσυνέτω παροργιῶ ὑμᾶς,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너희를 분노하게 하리라)
- ²⁰ Ἡσαΐας δὲ ἀποτολμᾷ καὶ λέγει· (그리고 이사야가 담대해져 말했다)
εὐρέθην [ἐν] τοῖς ἐμὲ μὴ ζητοῦσιν, (찾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ἐμφανῆς ἐγενόμην τοῖς ἐμὲ μὴ ἐπερωτῶσιν. (요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드러났다)
- ²¹ πρὸς δὲ τὸν Ἰσραὴλ λέγει·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가 말했다)
ὅλην τὴν ἡμέραν (종일토록)
ἔξεπέτασα τὰς χεῖράς μου πρὸς λαὸν (내가 백성을 향해 내 팔을 벌렸다)
ἀπειθοῦντα καὶ ἀντιλέγοντα.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말하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을 찾아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말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렸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 중 대다수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세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돌변했다.

그들에게 있어 복음은 유대교라는 오랜 전통 위에 세워진 사회 질서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들 눈에 복음 전도자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암적인 존재들이었다. 바울은 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부정적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도 같은 생각을 지닌 유대 지도자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변했다. 이렇게 세계관이 변하자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신봉했던 유대교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다.

“¹³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¹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다. 유대교를 신봉한 만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도 굉장히 컸다. 그래서 당시 스테반이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 증인으로 나선 자다. 그가 스테반의 죽음에 증인이 됨으로써 스테반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의 행동이 정당함을 입증한 것이다. 사울(후에 바울로 개명)은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참에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뿌리 뽑을 심산으로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들을 잡아들일 권한을 위임받는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기는 사울이 얼마나 기세 등등하게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지 (행 8:3)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행 9:1).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에는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을 완전히 재해석하게 되었다. 구약 곳곳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런 원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은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32 장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부분이다. 사도 바울은 그중 극히 일부분만 인용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살펴보기로 한다.

“⁸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있었도다 ⁹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케 한 연고로다 ²⁰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²¹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신 32:18-21).

바울은 신명기 32 장 21 절 중 하반절만 인용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다. 그들을 낳은 반석도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내신 하나님도 있었다. 반석은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신도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여기 까지 들은 유대인들은 참으로 억울해할 것이다. 조상들은 몰라도 자기들은 율법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것보다 지나치게 지키는 게 문제였으니 말이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에 천착(穿鑿)하는 이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게 돼 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드러내 놓고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스스로가 우상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의는 버리고 오직 행위로 의를 쌓는 데만 골몰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스스로를 우상의 자리에 올려 놓은 게 문제였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율법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있어 우상은 바알 같은 이방신이었던지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교회 다니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떠나 쉽게 우상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이스라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그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당신의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1~6)

- ¹ Λέγω οὖν,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μὴ ἀπίσωτο ὁ θεὸς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μὴ γένοιο· (절대 그럴 수 없다)
καὶ γὰρ ἐγὼ Ἰσραηλῆτις εἰμί,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ἐκ σπέρματος Ἀβραάμ,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난 자요)
φυλῆς Βενιαμίν. (베냐민 지파다)
- ² οὐκ ἀπίσωτο ὁ θεὸς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ὃν προέγν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ἢ οὐκ οἴδατε ἐν Ἠλίᾳ τί λέγει ἡ γραφή, (또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ὡς ἐντυγχάνει τῷ θεῷ κατὰ τοῦ Ἰσραήλ;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을)
- ³ κύριε, τοὺς προφῆτας σου ἀπέκτειναν, (주여 그들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τὰ θυσιαστήριά σου κατέσκαψαν, (그들이 당신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καὶ γὰρ ὑπελείφθη μόνος καὶ ζητοῦσιν τὴν ψυχὴν μου. (나만 홀로 남았고 그들이 나의 목숨을 찾습니다)
- ⁴ ὄλλα τί λέγει αὐτῷ ὁ χρηματισμὸς; (그러나 그에게 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κατέλιπον ἐμαυτῷ ἑπτακισχίλους ἄνδρας, (내가 나를 위하여 칠천 명의 남자들을 남겼다)
οἵτινες οὐκ ἔκαμψαν γόνυ τῇ Βάαλ.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다)
- ⁵ οὕτως οὖν καὶ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그러므로 현 시대에도)
λεῖμμα κατ' ἐκλογὴν χάριτος γέγονεν·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 ⁶ εἰ δὲ χάρις,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οὐκέτι ἐξ ἔργων,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ἐπεὶ ἡ χάρις οὐκέτι γίνεται χάρις.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구원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선택된 민족이다. 이제 약속대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로써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취된 셈이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해당한다.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이 맡은 역할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의 역할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모델 하우스는 실제로 입주해서 살 곳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실제와 똑같은 구조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구는 물론 각종 가전 제품도 구비해 실제 집처럼 멋지게 꾸며 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실제 아파트를 계약하도록 한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어 모두 분양되고 나면 모델 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아무리 모델 하우스를 근사하게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팔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지은 자가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도 없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과정을 거쳐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모델 하우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설명해 오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주체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다.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사도들의 전도로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나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인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들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이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³⁵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중략)...³⁸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³⁹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행 5:35-39).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도 강경하게 복음을 거부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율법과 무관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그들이 믿는 여호와와도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율법도 받은 민족은 자기들이 유일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하나님은 단 한번도 구원에서 유대인들을 배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도 동인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를 증인으로 내세운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¹³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¹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⁶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⁶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5-6).

바울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득권이 없어진 것이지 그 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받게 되나요?

오늘날에도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1~6)

- ¹ Λέγω οὖν,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μη ἀπώσατο ὁ θεὸς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μη γένοιντο· (절대 그럴 수 없다)
καὶ γὰρ ἐγὼ Ἰσραηλῆτις εἰμί,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ἐκ σπέρματος Ἀβραάμ,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난 자요)
φυλῆς Βενιαμίν. (베냐민 지파다)
- ² οὐκ ἀπώσατο ὁ θεὸς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ὃν προέγν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ἢ οὐκ οἴδατε ἐν Ἠλίᾳ τί λέγει ἡ γραφή, (또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ὡς ἐντυγχάνει τῷ θεῷ κατὰ τοῦ Ἰσραήλ;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을)
- ³ κύριε, τοὺς προφῆτας σου ἀπέκτειναν, (주여 그들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τὰ θυσιαστήριά σου κατέσκαψαν, (그들이 당신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καὶ γὰρ ὑπελείφθη μόνος καὶ ζητοῦσιν τὴν ψυχὴν μου. (나만 홀로 남았고 그들이 나의 목숨을 찾습니다)
- ⁴ ἄλλὰ τί λέγει αὐτῷ ὁ χρηματισμὸς; (그러나 그에게 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κατέλιπον ἐμαυτῷ ἑπτακισχίλους ἄνδρας, (내가 나를 위하여 칠천 명의 남자들을 남겼다)
οἵτινες οὐκ ἔκαμψαν γόνυ τῇ Βάβυλ.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다)
- ⁵ οὕτως οὖν καὶ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그러므로 현 시대에도)
λεῖμμα κατ' ἐκλογὴν χάριτος γέγονεν·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 ⁶ εἰ δὲ χάρις,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οὐκέτι ἐξ ἔργων,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ἐπεὶ ἡ χάρις οὐκέτι γίνεται χάρις.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달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에 굴복당한 이방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편입되었다. 단 한번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본 적 없던 이방인들이 단지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내용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라곤 할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아닌가? 자기들한테는 율법의 짐을 잔뜩 지워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엄포까지 해온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 율법을 떠나 예수라는 새로운 의를 보내셨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기에 이방인들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고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로 재차 그들을 설득한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다. 그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인 아합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아합왕은 시돈 사람의 옛바알(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 그를 섬겼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디셋 사람 엘리야를 보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삼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엘리야를 통해 바알이 단지 우상에 불과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셨고 그 결과 익히 아는 그 유명한 갈멜산 결투가 벌어진다. 결과는 당연히 엘리야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뺨히 눈 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도 이세벨은 바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 엘리야는 두려움으로 멀리 남쪽 호렘산까지 도망간다. 호렘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그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고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왕상 19:14)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렘산에까지 도망쳐 온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칠천 인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바울의 경고는 매우 역설적이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는 자들에 해당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단히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다 단 한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자신들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수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쳤다.

“⁴³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줄 알지 못함이로다 ⁴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⁴⁵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8:43-45).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진리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은 전부 다 바알과 같은 우상이다. 이스라엘은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복음을 온전히 아는가? 만약 그렇지 않고 단지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은 칠천 명에 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상 숭배자인지도 모른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포함됩니까? 무엇으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열매를 좇아간 이스라엘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7~8)

- ⁷ Τί οὖν; (그러면 무엇인가?)
ὁ ἐπιζητεῖ Ἰσραήλ,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τοῦτο οὐκ ἐπέτυχεν, (그들이 획득하지 못했다)
ἢ δὲ ἐκλογή ἐπέτυχεν· (오직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다)
οἱ δὲ λοιποὶ ἐπαρώθησαν,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 ⁸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ὁ θεὸς πνεῦμα κατανύξεως,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비된 영을 주셨다)
ὀφθαλμοὺς τοῦ μὴ βλέπειν καὶ (보지 못하는 눈과)
ὠτα τοῦ μὴ ἀκούειν, (듣지 못하는 귀를)
ἕως τῆς σήμερον ἡμέρας. (오늘까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다시 말해 선민 의식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만 하면 의로움과 거룩함이 유지되었고, 설령 부지불식간에 율법을 범해서 불의하고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바로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율법은 겉걸의 장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열심히 찾던 그 길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구하는 것을 얻지도 못했다.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율법을 어겨서도 아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 머물렀으며 율법이 정한 모든 것을 지켜 행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바울의 말에 동의했을까? 사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모형 역할을 했던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일찌기 로마서 3장에서 그 사실을 설교했다.

“¹⁹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²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²¹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롬 3:19-21).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울 스스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을 정도였다.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 어디 바울 한 사람 뿐이었겠는가?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수많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시비를 건 이유도 자신들은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 앞에서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늘어 놓았던 바리새인은 정말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 그 바리새인은 율법의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킨 의로운 자라고 자부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율법을 그 청년에게 주시킴으로써 주시킴으로써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그 청년이 대답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 말은 이 정도면 자기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이다. 추정의 말투로 말했지만 사실은 은근히 자기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확신에 찬 말이었다.

율법을 모두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네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영생을 얻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자기 길로 되돌아 갔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인간도 이 정도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도 놀라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겠느냐며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을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회의를 품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리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바로 이 한 마디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 영생이란 인간이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 것도 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점을 오해했다. 율법책에 쓰여 있는 대로만 지켜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엄격한 율법을 제시함으로써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에 쓴 율법에만 매달려 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린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삶의 하자가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율법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이 법이 되어 다시금 사람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인간이 선을 행한 대가로 얻는 것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둘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완성하셨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걸어서 버리는 자들이다.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의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은혜가 되나요?

하나님의 모략 (1)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7~8)

- ⁷ Τί οὖν; (그러면 무엇인가?)
ὁ ἐπιζητεῖ Ἰσραήλ,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τοῦτο οὐκ ἐπέτυχεν, (그들이 획득하지 못했다)
ἡ δὲ ἐκλογή ἐπέτυχεν· (오직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다)
οἱ δὲ λοιποὶ ἐπαρώθησαν,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 ⁸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ὁ θεὸς πνεῦμα κατανύξεως,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비된 영을 주셨다)
ὄφθαλμοὺς τοῦ μὴ βλέπειν καὶ (보지 못하는 눈과)
ὠτα τοῦ μὴ ἀκούειν, (듣지 못하는 귀를)
ἕως τῆς σήμερον ἡμέρας. (오늘까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 (The Divine Conspiracy: Recovering Our Hidden Life in God)’에서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자기가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목록에 들지 않는, 혹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대해 언제나 양심의 죄책감에 눌러 사는 것이다. 이 죄책감은 불행히도 기독교 역사에 끈질기게 지속돼 온 암울한 색채의 주범으로, 역사와 개인 생활에서 신앙의 긍정적인 힘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복 있는 자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보란 듯이 교만에 빠진다” (달라스 윌라드 (윤중석 역), *하나님의 모략*, 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00), p168).

달라스가 한 이 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한 말이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받은 자들은 자신이 그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격없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자책하고, 반대로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내 교만에 진다.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의 삶의 교훈이나 새로운 율법으로 오해하는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이 생겨나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도리어 자기들의 의를 만들어 내는 도구로 여겼다.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율법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오히려 그를 배척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고 있다. 그들이 율법을 자신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것으로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려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비된 영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는데 누가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바울의 이런 통찰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는 경험을 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한 대로 율법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 오셨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순간 드디어 바울의 귀가 뚫린 것이다. 그뿐 아니다. 멀었던 눈도 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밖을 바라보는 대신 내면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동안 자신의 영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머리가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가 막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곡되어 들린다는 말이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왜곡해서 적용함으로써 왜곡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강론을 들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자리를 떠나가고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홀로 쉬고 계실 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물어 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하셨다.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¹¹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¹²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¹³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마 13:11-13).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비유로 열심히 설명해 놓고는 기껏해야 극소수만이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해 놓으셨다는 말이다.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말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도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가르쳐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도대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 놓고 왜 그런 헛수고를 자처하신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모략이 숨어있다. 예수님은 분명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거라고 믿는다. 바로 이런 것이 마비된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밭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예수님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을 스스로 갈고 거름을 주어 좋은 밭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땅은 절대로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다. 이 비유에서 밭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 밭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마비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그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이들에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겐 율법이 되기도 한다. 마비된 영을 지닌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마비시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에 반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략 (2)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1:7~8)

- ⁷ Τί οὖν; (그러면 무엇인가?)
ὁ ἐπιζητεῖ Ἰσραήλ,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τοῦτο οὐκ ἐπέτυχεν, (그들이 획득하지 못했다)
ἡ δὲ ἐκλογή ἐπέτυχεν· (오직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다)
οἱ δὲ λοιποὶ ἐπωρώθησαν,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 ⁸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ὁ θεὸς πνεῦμα καταλύσεως,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비된 영을 주셨다)
ὀφθαλμοὺς τοῦ μὴ βλέπειν καὶ (보지 못하는 눈과)
ᾠτα τοῦ μὴ ἀκούειν, (듣지 못하는 귀를)
ἕως τῆς σήμερον ἡμέρας, (오늘까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기왕에 설명한 김에 ‘율법의 역설’에 대해 한번 더 언급하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로마서 11장 8절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역설을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비된 영을 주셨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다. 사십 년간의 광야의 삶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재차 율법을 설명하신다. 율법 선포를 끝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²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³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신 29:2-4).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다. 그들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집트 땅에서 경험한 열 번의 재앙도 그렇거니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물 사이로 거대한 길이 생겨나 이집트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그들을 집요하게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고 목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들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을 해대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모세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이스라엘의 믿음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장자 심판을 체험한 이후 오십 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된다. 그 율법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삶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이었다.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깨닫고 먼지에 불과한 인간의 실존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자신들의 의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광야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분명 율법이 그들의 귀에 들렸는데 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엉뚱하게 해석해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도 못 알아듣는 바보들이었을까? 아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토록 많은 기적들과 선포된 율법을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반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모략 때문이었다는 말이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된다. 이사야서 6장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로 시작된다. 웃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B.C 791년부터 739년까지 무려 52을 통치한 왕이다. ‘여호와와 나의 힘’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웃시야 왕은 집권 초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였으나 말년에는 자기가 직접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등 자기 직분을 넘어서 교만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 격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된다. 그런 그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직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 명령이 바로 예수님이 썩뿌리는 비유를 마치시며 인용하신 그 부분이다.

“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 6:9-10).

하나님이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은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아래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있어야 한다. 그들은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표피적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야 했고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이유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억울해 했을 것이다. 사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급격히 쇠락하여 결국에는 둘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스라엘은 역사가 흐를수록 더욱 더 율법의 문구에 갇히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이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박도록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오히려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과업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마비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기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받아들일도록 훈련된 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도리어 율법에 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누구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은 자이며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성경 말씀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깨달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